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자백 강압수사 있었다

오늘 재심 재판... 주요 쟁점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명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3일 광주고법에서 시작된다.

사건 발생 15년만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광주일보는 사건의 전말과 재심의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 A씨와 막내 딸인 B씨가 범인이자 공범으로 지목됐다.

이들 부녀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A씨는 무죄, B씨는 무고죄만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2년 3월

막걸리 구매 밝힐 CCTV 영상·오이농사에 청산가리 사용 여부 등 당시 수사·검찰 수사관·경찰·화학과 교수 등 증인 요청 예정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A씨 부녀는 11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해 재심이 결정됐으나 검찰이 불복해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재심개시 결정이 나왔다.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부녀의 자백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한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들 부녀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신문 과정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를 남용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재심결정을 내린 재판부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주장을 받아들

었다. 결국 재심 재판과정에서 부녀의 자백이 강압수사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인 것이다.

이들 부녀의 강력한 유죄의 증거였던 자백이 강압수사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부녀의 피의자 신문 당시 영상이 주요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와 수사관 등이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수사 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들 부녀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진술 거부권 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처음부터 B씨를 피의자로 수사한 것이 아니다. 강간 피해 무고 혐의가 드러난 B씨가 살인 범행을 자백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라며 "자백에 대한 위법 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변호사는 강압수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재판부에 증인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A씨는 막걸리를 구매했나=범행도구인 막걸리와 청산가리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가 2009년 7월 2일 오후 6시께 자신의 화물차를 직접 운전해 순천시 한 시장의 식당에서 범행에 사용한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다.

하지만 재심결정 과정에서 재판부는 경찰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CCTV 자료를 새로 발견된 무죄의 증거라는 주장을 인용했다. 이 CCTV영상은 A씨

가 막걸리를 구매했다는 2009년 7월 2일 밤 영상으로 A씨의 화물차가 주차된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맞다면 A씨는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이다.

또 다른 범행도구인 청산가리를 A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유도 재판의 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부녀의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에서는 오이농사를 짓던 A씨가 해충방제를 위해 청산가리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쟁점들을 확인하기 위해 CCTV영상을 검찰에 제출한 경찰 관계자와 오이농사를 짓는 농업인, 화학과 교수 등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 부녀의 무죄와 함께 수사기관이 제시한 부녀의 범행동기까지 사실이 아닌 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의 동전 얼마나 모았나 '송년나눔을 위한 사랑의 동전모금함 개봉식'이 열린 2일 광주시 북구 문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시 북구 창조어린이집 원생들이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유히 저금통을 개봉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10도 '뚝'

3~4일 영하권 추위... 4일 함평·영광 등 눈·비

초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에 '동장군' (冬將軍)이 기지개를 펼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찬 내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이 3일과 4일 영하권 날씨를 보이겠다"고 2일 예보했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1~4도·낮 최고기온은 6~11도 수준이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2~3도·낮 최고기온은 8~11도에 분포해 평년(최저 영하1~5도·최고 10~12도)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기온을 보이겠다.

비교적 온화했던 2일보다 10도 가량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추위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4일에는 함평·영광 등 전남 북서부부 중심으로 0.1mm 미만 빗방울 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 있겠다.

특히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산지 초속 20m)의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서해남부북쪽편바다에 초속 9~1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1.5~3.5m로 높게 일면서 2일 오후 8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4일까지 타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간대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겠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미끄럼 예방... 지리산 '성삼재 도로' 차량 통제

구례 천은사 입구~달궁사거리 내년 3월까지

구례군이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지리산국립공원 내 일명 '성삼재 도로'에 대한 차량 통제를 실시한다.

1일 지리산국립공원과 구례군에 따르면 내년 3월 31일까지 천은사 입구~성삼재-달궁사거리에는 14km 구간에 대해 차량 출입이 금지된다.

해당 도로는 겨울철 상습적인 결빙, 안전사고가 발생해 매년 일정기간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와 도

로 구조 긴급 복구 및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구난차량, 국립공원 업무차량은 통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 남구, 21일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설명회

광주시 남구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남구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 집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2일 남구에 따르면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지원에 필요한 핵심전략을 제공하는 자리인 입시설명회 신청자를 모집한다.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교육청 진로 진학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가 강사로 나서 '2025학

년도 정시 종합 분석과 핵심 이슈'를 주제로 입시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100여년간의 진행되고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입시설명회는 선착순 100명만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19일까지 남구 문화교육행사 어플 혹은 네이버폼(https://naver.me/Grmbkoku)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앞서 16일부터 18일까지 오후 6시부터 밤

9시 10분까지 청사 1층 북 카페에서 대입 정시 대비 1대 1 컨설팅도 진행된다.

컨설팅 멘토로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소속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이 참여하며, 수험생에게 대학별 사례 분석 및 합격 전략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1대 1 컨설팅 및 입시설명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께서는 신청을 서둘러달라"며 "유익한 입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사범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예능	유아교육과	8 2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